

사람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할말은 한다 1호

2019년 1월 2일 수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전화/920-5159

〈2018년 4/4분기 노사협의회 보고〉 - 현장의 어려움 이해하는 자리, 노사협의회

노사 신뢰를 쌓아가는 시작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병원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한

2018년 4/4분기 노사협의회가 지난 12월 진행됐다.

노사협의회는 27일 오후 3시 의과대학 318호에서 노사 대표위원인 및 위원들이 모인가운데 진행됐다. 사측 대표로는 이기형 의무부총장이, 노측 대표로는 노재옥 지부장이 참가했다.

회의는 의료원이 의료원 보고사항을 발제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노측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안전을 논의했다. 우리지부는 부서에서 해결되지 못하거나 병원 산안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던 안들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다.

사, 노사관계가 과거와는 달라졌다. 의료원 성장하면서 직원들의 어려움 이해했다.

노, 노사 신뢰가 쌓이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전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노사 대표인사에서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올 해 단체교섭은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했고 원만치는 않았지만 자율타결로 잘 끝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료원이 성장하면서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재옥 지부장은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해 노측도 동의한다. 노사

신뢰를 쌓아야 하는 순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 논의 안전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었으면 한다. 매 순간을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원, 생리휴가 사용률 독려 및 구로 안산병원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입장 밝혀

우리지부는 지난 교섭에서 다뤘던 생리휴가 요구와 관련하여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언급하며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말했다. 의료원은 “인사팀에서 사용 독려 공문을 보냈고 분기별로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생휴 사용에 대한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시정지시 사항으로 안암병원 3교대 근무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구로 안산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의료원은 “회기년도 안으로 지급할 계획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시설팀 통폐합 및 선임관련, 52시간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시설팀 선임 기준과 관련한 안전에 이르러서 노재옥 지부장은 “사무국장님과 3가지 약속을 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약속을 어기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시설팀 문제가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에 이기형 의무부총장도 “다시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52시간 제도개선에 관한 안전을 논의하면서 우리지부는 “콜 당직근무는 병원 규정상 없는 제도다. 당직제로 전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노동 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원은 “각 병원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52시간 초과 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력을 줄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해결하

려고 한다”고 말했다.

병원별 산안위를 통해 논의했던 신규직원 건강검진 시 검사비 부담 및 간편화 지급 부서 확대의 건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은 이를 포함한 약 11가지로 진행됐으며 1시간 반 가량 진행했다.

한편, 논의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안전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실무회의를 열어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및 논의 안전 결과〉

의료원 보고사항	
요청 자료(보고사항)	의료원 보고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017.06.01.-2017.11.30 / 2018.06.01.-11.30	① 환자현황 : 외래 환자수가 전년 동월대비 23,572명으로 1.7% 증가했으며 입원환자수는 7,923명으로 1.8% 증가했다. ② 수가현황 : 전년 동월대비 외래는 5.9%, 입원은 9% 증가했다.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구로병원 13베드 증가, 안산병원 62베드 증가하여 총 75 베드 증가로 총 2,848베드이다.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018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직 14명, 간호직 268명, 의료기술직 29명, 일반기술직 1명을 충원했다.
4. 의료원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2018년도 결산 이후 제출

안전	노동조합	의료원
2.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규직원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건	신규직원으로 입사 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타 병원 및 일반 기업들의 경우 건강검진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복지혜택 차원으로 무료로 전환하자.	타 병원 경우가 원내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우리 병원은 지방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멀어 배려하는 차원으로 원외에서 하는 검사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요구는 알겠다. 고민해보겠다.
간편화 부서 확대에 관한 건	병원별로 지급되고 있는 간편화는 간호부 및 일부 직종에 속하는 직원들에만 지급되고 있다. 규정에 없는 부서에서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간편화를 착용하고 있다. 원내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난번 회의때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확대하기 시작하면 계속 범위가 넓어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고민해보겠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 수당 지급에 관한 건	① 부서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진행하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관련하여 법적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00% 지급되어야 한다. ② 회람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율과 시기를 명시해야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다. 또한 안암 수술실의 경우 아직까지도 50%도 쓰지 못한 직원이 대다수이다. ③ 사용이 큰 원칙이지만 수술실 등의 특수파트에서는 신규인력을 투입해도 환자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어 선불리 갈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시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며	① 연가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라 휴가를 입력하라는 회람을 보냈다. 법 적 절차를 준수했고 휴가계획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이 연차를 입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② 20% 제외하면 많이 남지 않는다. 우선 100% 갈 수 있게끔 고민해보겠다. ③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100% 쓰도록 유도하고 특수한 부서들의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수술실도 검토해보겠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체협약 평가 문구 지방노동위원회 해석 공동 요구에 관한 건	경영전략팀 유권 해석으로 ‘재직 기간 중 진단서 첨부 시 2개월 이내에 한하여 1회 평가 인정’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재직기간 중 1회의 평가만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사측의 일방적 유권해석이 아닌 노동부의 합리적 공동 해석을 요구한다.</u>	유권해석 요구는 수용불가이다. 2년마다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다. 그 때 수정하지 못한 사항을 안전으로 제시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자.
52시간 제도 개선에 관한 건	① 52시간 단축근로 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합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었고 합의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있다. <u>이에 52시간 단축근로 준수를 위한 위반 부서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u> ② 온 콜 부서의 경우 제도자체를 인정한 적 없다. 그렇기에 부서의 온콜을 당직제로 전환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사용자측에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노사 합의서는 유효하다. 지난 달 각 병원 총무팀, 간호부 인사담당자와 2차 회의를 진행했다. 52시간 초과 시 1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는 부서를 조사하라고 했다. <u>휴게 시간 보장이 안 되면 인력을 충원할지 온콜을 없애던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법에 준수해서 하려고 한다.</u> ② 온 콜에 대해서도 질의 했으며 예를 들어 콜이 왔을 때부터 집에 가는 시간 30분 정도를 적용하면 그 다음부터 11시간을 주면 된다고 해서 조사 중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력을 요청할 것이고 그에 맞춰 해결하려 한다.
출퇴근 관리 및 초과근무 개선에 관한 건	현장의 연장근무(시간외 근무)가 일상화 되어 있으나 보상은 매우 미흡하다. 특히 간호부의 경우 연장근무를 입력하는 시스템조차 없어 더욱 열악하다. <u>시간외 근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u>	<u>간호부 연장근로수당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전산운영팀과 협의해서 개발 중에 있다. 늦어도 4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이 되면 설명하겠다.</u>
3. 안전보건 기타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팀 환경개선 및 선임에 관한 건	①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실 통합과 관련하여 부서원들의 동의 없이 시설팀장에게 거짓보고를 했고 안암병원 경영관리실장과 면담을 통해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결과를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 사무국장님과 면담 시 실통합과 관련하여업무통합 아니다’, ‘근무형태 변경 아니다’, ‘비정규직 투입 하지 않겠다’ 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동제어실 나이트 근무 시 휴가 사용으로 자리가 비면 기계실 근무자가 대치를 해야 하니 업무를 배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1월 11일자로 비정규직을 교대 근무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② 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노조에서는 부팀장의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규정대로 부팀장이 선임을 하라고 한 것이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을 빼면서까지 소비안전관리보조자로 등록했다. 결국 부팀장이 일반 업무를 하고 일반직원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노조의 요구를 곡해하여 병원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식 밖의 행동이다. 시정되어야 한다.	① 시설팀 몇 몇 사람이 얘기하는 것인지 전부 얘기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 만약 현장이 그렇게 된다면 바로 얘기해달라. ② 지부장님이 얘기하셨으니 의무부총장인 제가 다시 챙겨보겠다.
4.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규직원 공개	안암 모 부서의 공개채용 과정에서 1월의 공채 요건을 통	채용비리는 아니다. 안암에서 채용공고를 한 것인데 그게

채용시 문제점 개선에 관한 건	해 면접 시 적임자 없음으로 되어 보류 되어 있던 자리가 11월 모집요강을 수정하여 특정인을 지칭하는 공고가 나갔다. 채용비리로 번지지 않도록 신규직원 채용 시 공명정대하게 인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문제가 된다거나 불법적인 부분이라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5.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반업무직 생후사용 건	① 2018년 교섭에서 생후 사용을 독려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노동조합 조사에 의하면 0%인 부서도 있다. ② 의기직의 경우 전혀 못 쓰는 부서가 대다수이다. 전체적으로 생후 사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① 인사팀에서 공문을 내려서 보내라고 했다. 분기별로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② 노사협력팀에서도 의무부총장님께 직접 보고한다고 간 호부로 얘기를 전달했다. 체크하겠다.
구로 안산병원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18년 교섭에서 3교대 근무 연장근무 수당 지급과 관련해 구로 안산 병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떤가?	회계연도 안에 지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새해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영리병원 저지, 돈보다 생명을,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듭시다!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영리병원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2014년에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새차레 걸쳐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12월 5일 제주도지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끝내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했습니다. 제주 공론조사 위원회가 영리병원 개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긴급 중집-지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의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반민주적인 폭거를 저지른 원희룡 도지사를 반드시 퇴진시킵시다. 촛불집회, 100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영리병원 반대 행동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요,

조합원 여러분!

2019년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 위협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고 전쟁터 같은 일터를 살맛 나는 일터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바로 노동자의 단결입니다. “돈보다 생명” 가치를 다시 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함께 가는 우리의 길이 바로 역사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 아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 순 자



돈보다
생명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Korean Health and Social Workers' Union